

캐디 희풍은 후안무치한 짓

골프에 있어 ‘땡그렁~’ 소리는 절정에서 울리는 교성(嬌聲)이라 했다. 교성을 국어사전에서는 여자의 간드러지는 소리로 풀이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요염한, 교태를 부리는 소리(coquettish voice)이거나 사랑의 소리(lovely voice)이다. 필자의 해석은 좀 더 영혼적인 심금(心琴)을 울리는 소리이다.

심금이란 견잡을 수 없는 미묘한 마음이다. 자극에 의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소리를 거문고에 빗대어, 마음속의 거문고 줄을 울린다는 뜻이다. 부처도 거문고의 줄을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늘어지지도 않아야 고운 소리가 난다고 했다. 욕심이 많으면 퍼팅이 강해지고, 반대이면 힘이 없어진다. 알맞아야 ‘골퍼’라는 남자와 ‘코스’라는 여자가 어울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땡그렁~’ 소리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급하게 빨려 들어가 툭 떨어지는 ‘땡그렁~’ 소리는 울림이 짧다. 홀컵을 빙그르르 돌아 툭 떨어질 때 멀리 퍼지는 절정의 울림이 생겨난다. 섹스를 할 때도 같다. 급하게 들어가 5초 만에 싹 때, 여자의 울림이란 기대할 수 없다. 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 후 홀컵을 빙그르르 돌아 쭉욱 들어갈 때의 울림이 최고 아니던가. (조크-만약 그 때, 빙그르르 돌다가 빠지면, 여자의 손이 전

광석화처럼 움직여 안으로 집어 넣는다.)

홀 컵은 그런 울림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쇠 홀컵에 음통이 있어 쇠부서지는 소리를 없애주고 청아한 소리가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개의 다른 파장을 가진 진동이 만나면서 소리가 일정한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도록 설계된 것인데 표면에서 2.8cm 깊이로 박힐 때 가장 멀리 퍼지며 심금을 울리는 절정의 맑고 고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 2.8cm의 완충 지대가 있어 빙그르르 돌다가 (성의가 보이면?) 빨려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가 실험하는 방법이 있다.

비기너 시절 누구나 경험하는 거지만 새벽 골프 약속 때 깊은 잠을 깨워주는 소리 중 으뜸이 바로 땡그렁~ 소리이다. 동급의 다른 소리가 있다면 여자의 교성이다. 흔히 맞춰 놓는 시계의 알람 소리는 잠을 깨워주는 순위로 치면 한참 싸구려 소리요, 아랫 등급이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땡그렁~ 소리가 오늘날 한국의 골프장 대부분에서 사라진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소비자 안목이란 게 없어 그저 “시간만 주면 고맙습니다”하고 허겁지겁 타운당을 하니 골퍼들 때문에 골프장들이 기본조차 안 지키게 된 건 아닐까. 골퍼들이 겉멋에만 치우쳐 깊은 맛이 나 가치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것만 같다. 솔직히 필자 주변에도 “가진 건 돈 밖에 없다”고 외치며 작대기 자랑, 옷 자랑, 달구지 자랑에 열 올리는 사람들 투성이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사회 분위기가 잘못 조성되어 음성적으로 즐기다 보니 골프의 진수를 제대로 알고 즐기는 풍토가 애초부터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아닐까.



이기운
(한위드스트리 대표)



골프에서 중시하는 에티켓(etiquette)도 한 번 더 강조할 요소이다. 에티켓은 매너(manner)의 상위 개념이다. 매너는 일상에서의 관습이나 몸가짐을 말하지만, 에티켓은 보다 고도한 규칙 예법 의례 등 신사가 지켜야할 의전적 범절이다. 골프 에티켓의 대상은 여성을 의인화(擬人化)한 골프코스라고 했다. 골프를 즐기면서 여성에 대한 에티켓도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는 것이 골프에서의 일거양득이다.

타운드 할 때 말없이 골프에 전념하라는 것은 골프 코스라는 여성과 진지한 데이트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골프 코스 위에서 캐디 엉덩이를 보며 해튼 희롱을 하기 일쑤다, 아니면 여성 동반자와 시시덕거리며 그런 위를 마구 돌아다닌다. 골프장에 그렇게 젊고 싱싱한 아가씨들이 넘쳐나는 나라도 사실은 한국 밖에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 캐디는 대개 4,50대 주부들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서 골프를 했는데 캐디는 청년들이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직접 캐디백을 끌고 다니며 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골프 캐디는 왜 젊은 아가씨들이 맡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무소불위(無所不爲)했던 군사정권의 산물이라고 할까? 그래서 처음 골프장에 데리고 가는 사람을 ‘머리 올려주러 간다’고 하는 유치한 은어까지 만들어 낸 것일까? 처음에는 캐디 머리 올려주러 간다고 하던 게 이제는 골퍼가 머리 올리는 것이 되어버렸다. 골퍼에게 무슨 상실할 처녀성이 있어서 머리를 올리는지... 우습지도 않다.

캐디는 경기 도우미이지 희롱의 대상이 아니다. 누누이 강조하건대 골프코스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한창 섹스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여성을 희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부도덕한 짓이다. 그러면서 무슨 골퍼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코스가-여성 이-그런 후안무치를 이해하고 받아주겠는가.

골프를 잘 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자, 얼마나 그녀(?)에게 집중하는 가를. 이를 실감나게 하는 용어가 골프미망인(widow)이다. 한국의 식자들은 주말에 아내를 혼자 지내게 내버려두고 골프에 몰두하는 걸 두고 하는 말로 알고 있다. 아니다. 식사 중에도 침실에서도 골프 이야기 외에는 일절 하지 않는 남편을 둔 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부’가 아니라 ‘미망인’인 것이다.